



군종주보

2022년 7월 24일(제1098호)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주님의 기도”

확장 시절, SNS라는 것이 나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NS의 폐해도 많긴 하지만, 가장 큰 순기능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 SNS를 통해 각자가 나누고 싶은 글이나 자신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우연히 보았던 글 중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들과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제 이름을 빛내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에 익숙해져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네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원함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지를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으로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그냥 보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글귀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바치곤 하는 주님의 기도. 때로는 정말 기계처럼 뿔어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도를 알려달라는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알려주고 남겨주신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 자체로 정말 값진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를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분명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역린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정조가 대소신료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는데, 매번 사서오경만을 가르치며 실제적인 것들을 논하지 않는 경연에서 자신들의 수업을 거부하는 정조에게 관리들은 우선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정조는 그들에게 기본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으며, 중용 23장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에 중용 23장을 답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왕의 상책이었던 신하였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곁에 배어 나오고, 곁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문자를 넘어, 실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정성을 다한 외침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장진원(프란치스코) 신부
소성(제17보병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창세 18,20-32
- 회 답 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 제 2 독 시 콜로 2,12-14
- 복음 본 호 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 복 음 루카 11,1-13
-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두 번째 시집

신부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지 얼마 안 되어 저는 저의 조국을 향하여 파견되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요동(遼東)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벨린(Belline) 명의의 주교님과 매스트르 신부님과 안드레아(김대건) 형제와 함께 있습니다.

언젠가 좋으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의 동포들을 만날 행운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하루하루 바라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저의 동포들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면 탄식과 눈물을 쏟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로 눈물겹지만 어떤 면에서는 흥미있기도 한 조선의 소식에 대해서는, 이미 신부님께서 장상들의 편지를 통해 더 자세하고 더 똑똑하게 들으셨을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의 부모들과 형제들을 따라갈 공훈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저의 신세가 참으로 딱합니다. 그리스도 용사들의 것처럼 장렬한 전쟁에 저는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렇듯이 훌륭한 내 동포들이며, 이렇듯이 용감한 내 겨레인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당신 종들의 피가 마치 아벨의 피처럼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의 넘치는 자비와 당신 팔의 전능을 보이소서. 언제쯤이면 저도 신부님들의 그다지도 엄청난 노고와 저의 형제들의 고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수난에 부족한 것을 채워 구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저의 미소한 지위와 능력 부족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많은 글을 써서 우리 회의 장상들과 지도자들에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형제 신자들에게 이 사정을 두루 알려드렸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마땅히 최대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즉 신부님께서 애덕과 지혜를 다하시어 우리 편의 많은 사정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널리 선전해 주시어 저의 간절한 소원을 채워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입 토미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높이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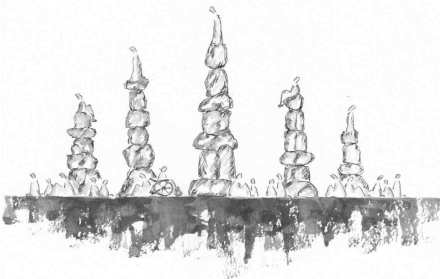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더 높이.

그렇게
혼자가 되어 가는 사람들.

누구도 덩비지 못하게
더 강하게.

꼭. 그럴 필요 없는데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알보지 못하게
더 많이.



상화이야기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존 에버렛 밀레
(1829년 ~ 1896년)
1849년 ~ 1850년 作
캔버스 위 유화
86.4 × 139.7cm
테이트 미술관
영국 런던

이 그림은 어린 아기 예수님이 목수인 아버지의 작업실에 있는 모습을 그렸다. 요셉은 테이블 위에 나무판을 올려놓고 문을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튀어나온 못에 손이 찔리셨고 손에서 흐른 피가 발을 적셔, 후에 다가올 십자가형을 암시하고 있다. 성모님의 어머니인 안나 성인은 튀어나온 못을 도구로 빼고 있고, 요셉은 예수님 손의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들여다보고 계신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달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당신의 볼에 입을 맞추도록 뺨을 내밀고 계신다. 뒷벽에 걸린 사다리는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사용할 사다리를 상징하고, 사다리 위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앉아 있다.

본 그림은 목수의 공방에 대한 솔직한 묘사로, 성가정을 너무나 동시대적이고 평범하게 표현했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후에는 중세적 주제를 가진 종교화를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담론을 촉발한 의미 있는 그림이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세속적인 일상생활과 성서적인 성스러운 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김은혜(캘리시맷)

교 구 소 식

군중포럼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농경 신진우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7월 26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